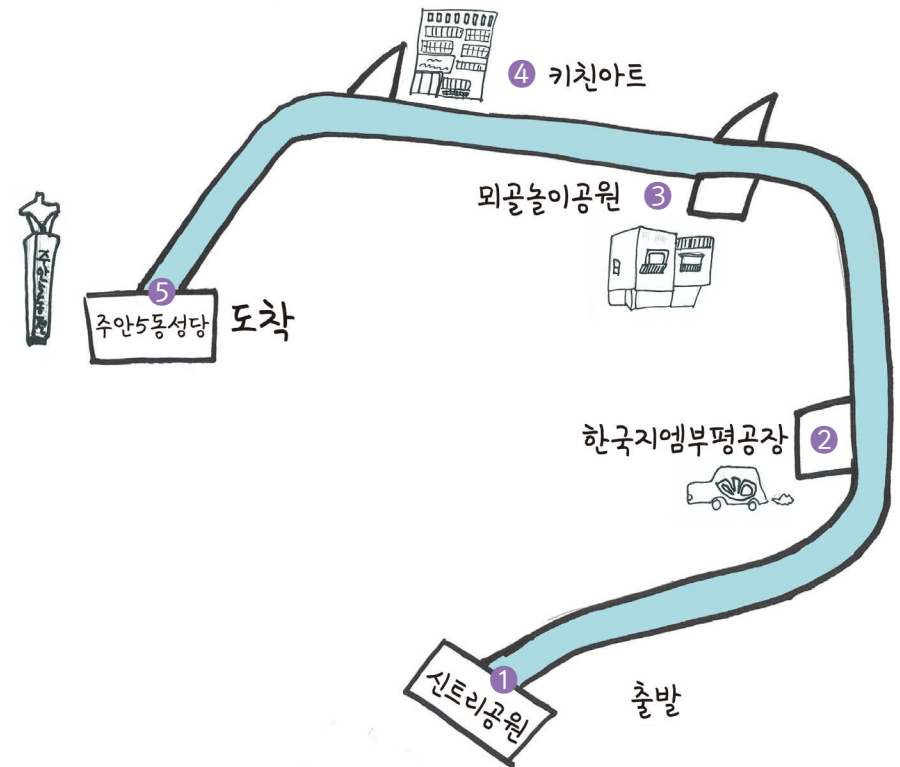


부평권



- 4 신트리공원 -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GM부평공장)
- 외골공원 - 키친아트
- 주안5동성당



강화고등학교
만든이 김하준, 김한기, 현재근

① 신트리공원(박영근 시비)

노동자 시인 '박영근'의 시비가 있는 곳이다.
그가 지은 한 편의 시는 위로가 되기도, 휴식을
제공하기도 했다. 노동자뿐 아니라 시민 모두의
휴식 공간인 이곳에 가서 박영근 시인의 혼이
담긴 시를 감상해보는 것은 어떨까?



다음 시의 빈칸을 채워보세요.

제목 :

부르네 물억새 마다 엉키던
아우의 피를 무심히 씻겨간
빈 나루터, 물이 풀려도
찢어진 무명베 곁에서 봄은 멀고
기다림은 철없이 꽃으로나 피는지
주저앉아 우는 누이들
웃고름 풀고 이름을 부르네

셋바람에 떨지 마라
어널넬 상사뒤
어여뒤여 상사뒤

(중략)

살아서 가다가 가다가
허기 들면 슬눈 씹다가
쌍이는 들잠 죽창으로 찌르다가
네가 묶인 곳, 아우야
창살 아래 또 한 세상이 묶여도
가겠네, 다시
만나겠네.



②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한국GM 부평공장)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인천의 대표적 대기업 노동조합으로 1963년 신진자동차 노동조합으로 출발하였다. 1985년 임금인상투쟁을 시작으로 정리해고 및 해외매각 반대 투쟁을 강력하게 전개하였으며, 87년 노동자 대투쟁 등 지역의 노동운동을 활성화 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 대표적인 노동조합이다.



<한국지엠인천부평공장. 한국지엠 제공>



위 사진처럼 상황에 따라 공장 주변에는 여러 플래카드들이 걸립니다. 우리도 노동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플래카드에 들어갈 문장을 써 볼까요?

Blank area for writing protest slogans.

③ 외골공원

외골공원 지역은 1980년대 노동 때문에 바쁜 삶을 살고 있던 노동자들이 아이들을 서로 맡아서 돌봐주는 마을공동체였다. 이곳은 현재 지역 공동체의 활성화와 마을 복지를 위한 문화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네야 놀자’를 넣어 내가 살고 있는 동네를 소개해 보세요.



<출처 : 인천in, 2018.2.23. 기사중>

‘동네야 놀자’

④ 경동산업(현 키친아트)



경동산업(현 키친아트)은 1960년 영등포에 국내 최초 양식기 공장이다. 1983년 인천 서구 가좌동에 제2공장이 세워졌다.

- 1984년 노동조합 설립
- 1987년 민주노조 설립을 위한 싸움 진행
- 2001년 공동소유, 공동책임, 공동분배를 내세운 (주)키친아트 설립

⑤ 주안5동성당

주안5동성당은 지역 노동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적극 지원했던 호인수(베네딕토) 신부의 주도로 미사·야간고등학교 운영·무료 진료·법률상담 등 주안공단 노동자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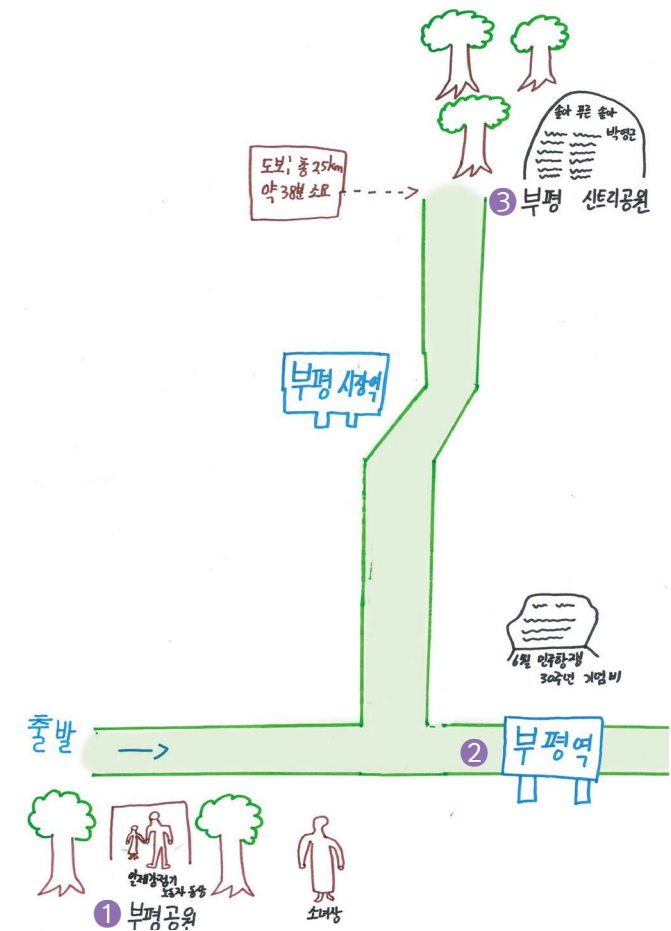
<출처 : 두산백과사전>

○○성당은 1980년대 공단 조성과정에서 주안5동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현재의 이름으로 바뀌기 전 이름과 그 이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옛 이름

담긴 의미

5 부평공원 일대 - 부평역광장 - 신트리공원



인천상정고등학교

만든이 박주원, 황윤성, 윤현수

① 부평공원 일대



부평공원 일대는 미쓰비시 제강 인천제작소가 일본 육군 조병창 (무기제작소)·조선기계 제작소 등 전쟁 수행을 위한 군수 공장과 시설들이 있던 곳으로, 미군기지·부평공원이 들어서 있었다.

특히 부평 공원에는 고향을 등진 채 국내외 각 지역에 끌려간 강제 징용노동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져 있다.

자신만의 강제징용노동자상, 평화의 소녀상을 그려봅시다.

② 부평역광장

부평역광장은 인천지역의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있어서 동인천역과 더불어 항상 주요집회 및 시위의 현장이 되어왔다. 특히 87년 6월항쟁부터 현재까지 전국적 차원에서 전개된 민주화운동에 있어서 부평역 광장은 인천지역의 대표적인 민주화운동 공간이다.



‘호헌철폐! 독재타도!’는 무슨 의미일까요?

6월 민주항쟁을 통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③ 신트리공원(박영근 시비)



박영근은 1980년대에 노동자의 정서를 풀어낸 대표적인 노동자 시인이다. 서울 근처에서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나 본격적으로 시 창작활동을 하면서 살았던 부평(부평공단)이 그 시의 배경이 되었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새긴 시비는 박영근이 살았던 부평구청 인근의 신트리공원 한 쪽 축구장 옆길을 걷다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술아 술아 푸르른 술아’를 들어봅시다

